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증천부(曾天富)*

1. 머리말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약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50년대 냉전 체제 하 양국은 혈맹으로서의 두터운 우의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류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어 관련학과가 성립되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1956년 국립정치대학 동방어문학과 소속의 한국어조(올해 한국어문학과로 독립)와 뒤이어 1963년 중국문화대학의 같은 과 한국어조(1994년 한국어문학과로 독립)가 성립되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 두 학교는 현재까지 대만 내 한국어 인재 배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더욱 가속화된 양국의 교류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어 인재의 필요성이 배가되자 국방어문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군관을 대상으로 하는 2년간의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 민간 차원의 한국어 보급이 있어 왔다.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1990년대에 들어서 양국은 비록 정식 외교 관계의 단절로 정치적인 교류는 도전을 받고 있으나, 문화, 교육, 경제, 무역 면에 있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간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21세기 자본주의 전지구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인접국간의 상호 이해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남북한 정상회담과 그 후 계속된 일련의 정부 차원 협상을 통해 한민족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주적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대만 민중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요구는 다방면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는 상술한 두 개 대학에 한해서 행해지던 한국어 교육이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의 채택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본문은 그 대상을 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제한하되 먼저 한국어 교재의 개발 연혁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실제 교수·학습의 교육 활동과 연계하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이끌어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교재의 개발과 관련된 한국어 교수와 학습의 실제 예는 다른 한국어 교수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생각에서 주로 필자 개인의 교수 경험과 사용 교재를 들어 설명하게 될 것이다.

2. 기존의 한국어 교재 개발 상황

1) 한국어 교재 개발 역사와 현황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1950년대 한국어 관련학과의 설립되면

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체계적인 교재보다는 주로 개별 교수자의 수업 필요성에 따라 엮은 단편적인 자료나 강의 프린트를 이용하거나 한국의 초·중·고 혹은 대학의 국어교과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90년대 이전에 개발된 교재를 살펴보면 책으로 나온 초기의 교재는 주로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자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명도언어연구원에서 나온 초기의 한국어 교재, 그리고 皇冠文化教育基金會에서 펴낸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이 주로 쓰였다. 그중 현지의 한국인 교수자에 의해 개발된 교재를 예로 들면 1968년 李元植 교수가 펴낸 『韓語入門』은 첫 머리에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 序說을 두고 다시 발음편과 해석편으로 나누어 엮었는데, 발음편에는 모음과 자음의 분석, 발음 변화를 설명하고 예문을 열거하였고, 해석편에는 조사, 어미 변화, 존경과 겸양법, 보조어간, 접두사, 접미사, 관용어 등을 나누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국 어문 서적에서 알맞은 예문을 따와 열거하였다. 발음과 문법에 치중하여 개발된 이 교재는 한국어 初學者들을 위한 입문서로 당시 교재 하나 없었던 열악한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나름대로 한국어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실제 학습의 효과면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초기의 외국어 교재가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발음 체계와 문법 설명을 학습 내용의 중심 위치에 놓음으로써 한국어의 언어학적 단편 지식만을 주입하는 데 머물고 말았으며, 예문에서 제시된 단어나 구절이 문법 설명에만 맞추다 보니 한국어의 단계적 습득을 저해하였고 일상 회화의 연습이나 듣기 능력 등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1972년 중국문화대학에서 펴낸 『韓語讀本』 上下冊을 보면 상권은 대학 1, 2학년의 초급 한국어 교재로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회화와 문법, 문형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어 엮은 것이고, 하권은 대학 3, 4학년의 독본교재로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산문, 소설, 시, 일기, 기행문, 논문, 응용문 및 희극 등 각종 문체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엮은 것이

다. 이 교재는 먼저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를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자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비교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회화보다는 문장 해독에 치중하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주요 목표인 의사 전달 능력의 신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외 1979년 정치대학에서 펴낸 강신항의 『韓語語法』 역시 상술한 교재와 유사하게 발음과 문법에 치중하여 초학자들에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의 특성을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문을 본국어로 번역하여 학습자가 자국어의 문법적 특성과 연관시켜 한국어를 이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교재 역시 기초 한국어의 전 과정에 사용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문법 위주의 교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밖에 명도원 출판의 한국어 교재와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은 중급 이상의 회화 과정에 쓰였으나, 이렇게 주로 현지에서 한국어를 교수하는 한국인에 의해 개발된 문법 위주의 교재 사용은 대략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가 언어 기능(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배양에 있다면 당시는 문법 위주의 교재가 실습, 회화, 독본의 전 과정에서 두루 쓰여 한국어 교육에 편차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그 사이 비록 책으로 엮여지지 않았으나 개별 교수들의 필요성에 따른 교재 개발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록 각 교과목의 학습 진도에 맞추어 그때그때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학습 방법의 고려 부족으로 단계적인 한국어 학습에는 그리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특성은 우선 교재 개발의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교재의 개발은 우선 교육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따른 내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의 교재는 한국어 학습의 여러 영역, 예컨대 실습(발음과 듣기 연습), 문법, 회화, 해독이 분리되지 않고 한두 교재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령 어휘 습득과 문형 연습, 문법 설명이 한

교재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들 각 방면의 학습 목표가 상호 비교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일된 상위 목표에 의해 통합되지 않을 경우 상호간에 모순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 진도에 지장을 초래한다. 문법 설명을 위해 앞 단원에서 배우지 못한 문형이나 어려운 낱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허다한 경우가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한국의 각급 학교 국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학습의 대상과 사고능력의 차이로 적극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본국 대학생이라도 한국의 초등학교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이럴 경우 교재 내용의 부적합이 한국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개발자가 한국인 교수자인 경우 현지 언어의 습관과 비교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교재 개발이 비교적 제한되므로 이상적인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대학생의 경우, 외국어의 학습에서 자국 언어와의 비교 속에서 외국어의 여러 특성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거치면서 대만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원인은 한국 내 한국어 교육 연구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교육기관들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들이 대량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어 학습 방법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대학과 문화대학에서 쓰였던 한국 개발 교재를 예로 들면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세대 한국어학당,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각종 시리즈 교재 외 HOLLYM출판사의 *Functional Korean, Speaking Korean I·II*, 명도언어연구원의 *Myöngdo's Korean* 등이다. 이들 교재의 특성은 한국어 학습의 각 영역을 모두 포괄함은 물론이고 종래 독본 위주의 교재에서 벗어나 테이프, CD, 인터넷 교재 등 다양한 주변 교재를 활용하는 데 있다(김중섭, 1999: 19). 한국 개발 교재의 대량 유입은 대만 내 한국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회화 방면의 교재가 대부분이로 충당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들 교재는 우선 다양한 일상 용어를 풍부하게 실고 있으며, 각 단원의 내용 배경이 현실적이고, 대부분 한국어

학습자가 부딪히는 일상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한 권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로 편성되어 있어 같은 교재로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한국어를 일관적인 체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최근 10년간 거의 이들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재는 첫째, 그 내용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생활과 차이가 나며 둘째, 단어나 문형의 해석, 설명이 한국어이거나 영어, 일본어에 한정되어 있어¹⁾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교재는 그 대상이 외국인인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학습 대상이 설정되지 않아 현지의 대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교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회화 교재나 테이프로 된 듣기 위주의 주변 교재이외의 교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어휘나 문법 설명, 해석이 본국어로 나와 있지 않아 자율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와 비교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대만 내 한국어 교수자들에 의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문법

『現代韓語基礎句型研究』(『현대 한국어 기초문형연구』, 王俊 편저, 1983).

『韓語語法』(『한국어 문법』, 楊人從 편저, 1986).

『現代韓國語助詞』(『현대 한국어 조사』, 王俊 편저, 1989).

『韓語語音學』(『한국어 음운학』, 王俊 편저, 1993).

『韓語句法』(『한국어 문형』, 王俊 편저, 1995).

『輕鬆學韓語-句型韓語 1-6』(『쉽게 배우는 한국어-문형 한국어 1-6』, 林明德 편저, 1998).

『韓國語語言學概論』(『한국어 언어학 개론』, 王俊·郭秋雯 공저, 2000).

1) 최근 들어 중국어 해석이 있는 교재가 몇 권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이곳에서 교재로 선택되지 않고 있다.

문장해독

- 『韓語讀本』(『한국어 독본』, 王俊 편저, 1983).
- 『韓語方塊文選』(『한국어 칼럼 선독』, 楊人從 편저, 1988).
- 『韓語讀本』上下(『한국어 독본』 상하, 楊人從 편저, 1991).
- 『韓國語』(『한국어』, 王俊 편저, 1993).
- 『韓語翻譯與解讀』(『한국어 번역과 해독』, 王俊 편저, 1994).
- 『中級韓語讀本』(『중급 한국어 독본』, 蔡連康 편저, 1997).
- 『綜合韓國語』(『종합 한국어』, 王俊 편저, 2000).

사전류

- 『韓語擬聲·擬態語』(한국어 의성·의태어』, 張介宗·邊成圭 편저, 1992).

회화

- 『基礎韓語會話』(『기초한국어회화』, 王俊편저, 1992).
- 『中級韓語會話』(중급한국어회화』, 曾天富편저, 1994).
- 『高級韓語會話』(『고급한국어회화』, 王俊편저, 1996).

실습

- 『韓國語視聽教材Ⅲ』(『한국어 시청교재 Ⅲ』, 曾天富편저, 1999).

이들 교재는 우선 더 이상 한 권으로 한국어의 모든 영역을 학습케 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목표와 학습 정도를 감안하여 개발된 것으로 그간 누적된 교수자의 경험과 학습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교수자는 자신이 직접 구상한 과목별 전체 학습 목표에 준하여 단원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검토하면서 교재를 분석 평가하여 이 결과를 다음 번 교재 개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고, 또 학습자는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와는 달리 본국어의 풍부한 해설과 역문을 통해 본국의 언어 습관과 문법 차이를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우선 한국어 교육의 영역별 교육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자(교수자)의

경험에 의하거나, 교수상의 단기적 필요성에 따른 내용 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이 극히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영역과의 유기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교재 내용 역시 생동감 있는 당대 한국어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는 것이 많다. 회화 교재일 경우 단원 구성에서 본문과 어휘 해석에 그치고 있으며 상관 문형 연습이나 반복 연습을 위한 유사한 상황의 설정 같은 항목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문법 교재도 풍부한 구문의 예시보다는 해설에 치중되어 있으며, 독본 교재 역시 한국 문장의 나열에 그쳐 계통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교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생한 당대 한국어를 풍부하게 신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한국어의 사용 실태를 제때에 파악하여 교재 개발에 운용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대 한국의 언어 실정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이제 언제라도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로 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언어 현실의 간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식 출판된 교재에 한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정식 출판은 아니나 개별 교수자들에 의해 인쇄, 녹음, 편집된 교과서 이외의 주변 교재들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는 우선 집계하기도 어렵거니와 대부분 학습 목표와 교수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교재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습효과의 측면에서는 상술한 교재보다 나은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동성과 생동감 넘치는 내용 구성으로 한층 더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정식 교재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국 교수자들에 의해 개발된 교재의 혼용이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대만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실상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런 상황은 적어도 제한된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일종의 절충인 셈이다. 왜냐하면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현지 학

습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교재를 개발하거나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설명보다는 반복 연습이 중시되고 한국의 당대 언어 실정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회화, 실습 교재는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가 대부분 이용되고, 반면 문형과 문법 설명이 자세히 요구되는 교재는 대부분 현지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2) 한국어 교재 사용의 실례

현재 대만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두 대학의 사정이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실제 예로 하여 교재 사용 현황을 분야별, 학습정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단계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논의의 기초로 삼는다. 먼저 현재 한국어문학과와 교과 과정을 학년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학년 : 初級韓國語, 韓語會話(一), 韓語實習(一), 韓語語法(一), 韓國文化概論, 韓國地理, 韓國現勢(한국실정)
- 2학년 : 中級韓國語, 韓語會話(二), 韓語實習(二), 韓語語法(二), 韓文習作(一), 韓國史, 韓國文學概論, 觀光韓語, 韓國經貿(한국경제무역)
- 3학년 : 高級韓國語, 韓語會話(三), 韓語實習(三), 韓文習作(二), 韓語語言學概論, 韓國文化史, 商用韓語, 新聞韓語, 韓語修辭學, 韓語應用文, 韓國近代小說選讀
- 4학년 : 實用韓國語, 韓語會話(四), 韓語翻譯與習作, 韓語口譯, 韓國文學史, 韓國名著選讀, 韓國詩歌選讀, 韓國專題研究²⁾

여기서 어학 관련 과정 중 <韓國語> 과목은 독해, <會話>는 말하기,

2) 이 과목 중 정치대학은 會話, 實習과목이 1학년에 한해 두 반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교수자가 다른 교재로 가르치고, 문화대학의 경우는 會話와 實習과목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학년별 동일 과목은 같은 교수가 가르치게 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實習>은 발음연습과 듣기, <語法>은 문법과 문형연습, <習作>은 작문 능력의 배양에 각각 중점이 두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을 기를 수 있게 교과 과정이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과목이 같은 교수자에 의해 4년간 혹은 2년간 연속적으로 교수되는 것이 아니라 매 학년마다 다른 교수자가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같은 학년이라도 두 반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교재의 사용에서 학년별, 학급별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예를 과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목(학습 목표) 학년	韓國語 (읽기)	會話 (말하기)	實習 (듣기)	語法	習作 (쓰기)
1학년	韓國語1(북경 대학 조선어敎 研究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 소, 2000)	한국어1(연세 대 한국어학당, 1995)/ 한국어 읽기 (연세대 한국 어학당, 2000)	한국어1(연세 대 한국어학당, 1992)/ Myōngdo's Korean Part I (명도원, 1985)	韓國語音學 (王俊, 1993)	
2학년	綜合韓國語(王 俊, 2000)/ 한국어2(서울 대 어학연구소, 1998)	中級韓國語會話 (曾天富, 정치 대학 東語叢書 20, 1994)/ 한국어 회화 II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1997)	한국어2(연세 대 한국어학당, 1993)/ Myōngdo's Korean Part II (명도원, 1988)	한국어 문법 I·II(임홍빈 외, 연세대, 1987)/ 韓國語語法(楊人 從편저, 1986)	輕鬆學韓國語-句 型韓語1(林明德, 1998)
3학년	한국어3(연세 대 한국어학당, 1993)	한국어 회화 III, IV(고대민족문 화 연구소, 1997)	韓國語視聽敎 材 III(曾天富, 1999)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중 급1(시사교육 사, 2000)
4학년	사랑과 지혜 그 리고 창조(안 병옥, 正宇社, 1978)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중 급2(시사교육 사, 2000)			韓語翻譯與解 讀(王俊, 1994)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과목끼리 대부분 시리즈로 나와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면서도 학년마다 각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교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교재가 많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선 학습자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참신하고 보다 당대 현실과 가까운 한국어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교수자 자신이 한국어 교수에 흥미를 갖고 재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그대로 학습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매 학년마다 심지어 같은 학년의 두 개 반에서 각기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회화, 실습과목이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들 한국어 연구 기관의 교재들은 정도를 달리하여(대부분 초·중·고급 한국어 능력을 구사하게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몇 권의 주 교재와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여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각 연구 기관의 교재들이 비록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외국어 교육의 관건인 단계별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교수자가 이 중 임의로 한 권을 선택하여 교재로 삼을 경우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가 갖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차이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수없이 발생하는데, 특히 회화 교재일 경우 문법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고학년의 경우라도 왕왕 처음 나오는 문형에 부딪히거나 혹은 같은 문형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학습 진도에 차질을 빚게 되고 난이도의 분포가 점진적이지 않아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읽기와 한국어 독해 능력 제고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韓國語>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선 이 과목은 한국어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 한국어의 특성, 자모, 발음, 어휘, 문형, 어법, 문장 등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그만큼 교재 개발과 선정도 어려운데 현재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독본이나 회화 교재를 그대로 사용

함으로써 교과와 학습 목표에도 미달될 뿐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이 과목의 특성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본국어로 된 풍부한 설명과 역문 등이 구비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한데 현황은 이와 상치되어 있다. 독본 교재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은 내용이 단순하고 문법이나 어휘 구사에서 난이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대학생인 본국인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때문에 대부분 각 문체를 포괄하는 한국의 명문장을 선별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체계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된 것은 아니다.

<習作>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습작의 학습 목표는 한국어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의 양성이다. 즉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해 내는지에 대한 연습과 상당한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부합되는 교재 개발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독본이나 문법 교재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翻譯> 과목은 한국어 학습의 최종 단계로 문법, 독해, 작문 능력 등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각종 구문 형태를 숙지하여야 가능하다. 때문에 그 교재 개발의 중점은 현지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곳이나 양국 언어 차이로 인한 특수한 사용 예문에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교재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독본이나 문법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현재 대만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은 비록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 영역별 교과 과정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회화와 독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학습의 각 영역별 과목 선정은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이는 대체적으로 교수와 학습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만약 이상적인 교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면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앞서도 보았듯이 체계적인 교재의 미비로 인해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마친 학습자 중에 듣기, 읽기, 말하기는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달성되는 데 비해 작문 능력은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작문 연습을 단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교재나 보충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보아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교재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각 분야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대만의 한국어 교육이 보다 알찬 성과를 맺게 될 것이다.

3.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상에서 현 단계 대만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검토해 본 결과 회화, 독해, 실습 분야는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문법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에서 개발된 교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가 정확한 발음 연습이나 듣기, 일상적인 회화의 운용 등에서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교재의 선택과 운용이 계통성 없이 각 교수자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고학년의 습작, 독해, 번역 교재로도 쓰이고 있음은 재고해 볼 만하다.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는 우선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질을 고려해 언어권에 따라 교재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될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만의 한국어 교육이 단순하고 초보적인 언어 기능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한국학의 기반을 다지는 대학교육임을 상기할 때, 현지 학습자가 자국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고 또 한국어를 통해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려면 한국에서 개발된 표준형의 교재보다는 자국의 언어습관, 사회, 문화제반을 한국과 상호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는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만의 교재 개발 현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 학습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본문을 통해 재차 강조된 것으로 모든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자국의 언어와 대비하는 가운데 다른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한국어 학습의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이미 자국어의 소양이 충분한 이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자국의 언어 습관과 비교하게 된다. 초기 단계의 발음 체계, 단어 체계, 문법 체계의 비교에서부터 표현 방식, 문화 전통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각 학습 단계에 따라 부단히 두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때문에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는 이러한 학습 지역의 언어 특성, 문화 전통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자가 비단 한국어의 특성뿐 아니라 자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자국어의 학습교재 내용과 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문형이나 발음 체계에서 상세한 비교와 더불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역문을 게재하되 실제 학습 현장에서 자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침서 같은 보조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조언어학이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함은 바로 학습자의 자국 언어와 특정 언어의 비교를 통해 한결 학습을 수월하게 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지역의 언어를 고려한 각종 교재 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2) 학습 목표의 설정과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우선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계성, 연속성을 가진 교재의 개발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그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재의 개발은 매우 미진한 편이다.³¹⁾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교육의 종합적인 계획 아래 단계별,

영역별, 교과별 학습 목표의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학습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의 한국어 학습에서는 입문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학습 목표를 정한 뒤 이에 준해 교재의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데, 가령 기본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체계와 단계를 정하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역별 학습 목표 아래 각 과목의 세부적인 목표, 즉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도 정해져야 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 제시에서부터 학습 경험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세부사항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이에 준하는 교재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종전까지 교수자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교재 선택과 개발에서 벗어나 교수법 등 이론적 요소를 중시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교재는 교수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시키고서는 질 높은 교재를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재의 개발에 앞서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한 교재에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이론과 실체가 어긋나지 않는 언어 교육의 기초가 마련된다.

3) 다양한 영역별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의 한국어과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그 목표가 한국학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이란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한국어 언어 기능의 습득에 대부분의 교과를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회화, 문법, 습작, 번역, 독해 등 각기 다른 영역의 교과에서 쓰이는 교재 역시 다양하지 못하고 문법을 제외한 교과들은 중

-
- 3) 앞에서 본 현지 개발 교재는 그 교재명으로만 본다면 각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투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가령 회화 교재는 상황설정과 그에 알맞은 회화 연습이 아니라 문형을 설명하는 방식을 위주로 대화가 엮여져 있고, 독본이나 번역 교재는 한국의 문장을 장르별로 나열한 것이 많고, 문법 교재도 충분한 설명과 유사한 용법의 비교 등 예문 제시가 매우 미흡하다.

복된 교재를 쓰거나 회화 교재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적으로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발음과 듣기 연습에 치중하는 실습의 경우 저학년의 교재는 한국에서 개발된 청각 교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중급 이상은 대부분 비디오를 통해 드라마를 직접 보여주거나 방송극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는 반복해서 듣거나 따라하기를 실행할 수 없어 학생들은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고 느끼기 일쑤다. 때문에 3, 4학년을 위한 실습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⁴⁾ 습작이나 번역 과목의 경우는 교재가 매우 적어 대부분 한국의 신문보도나 사설, 수필이나 단편 소설 중 임의로 선택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일상 회화와 단편적인 문법 지식에만 익숙해 있던 학습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실제 학습 현장에서 이런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의 문장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정도에 알맞은 간단한 문장부터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되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언어 교육에서 진보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언어 학습 단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난점이 있기는 하다(Stern (심영택 역), 1995 : 421). 또한 언어 사용이 하나의 총체적 활동이니만큼 한국어 학습의 각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과과정에서 주요 영역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의 체계와 단계는 설정되어야 하고 이는 어휘, 문형의 사용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 영역의 독자적인 교재의 개발은 여전히 중요하며 학습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이

4) 실습 과목의 경우 정치대학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문화대학은 4학년까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영역별 교재 개발에서 난이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영역별로 과목이 세분되어 있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만에서 개발된 교재이거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한국 개발의 회화 교재들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앞 몇 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문법적 요소가 대량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형 설명 후 열거한 예문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개념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용법의 조사 혹은 연결어미의 비교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같은 단원에 몇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 교수자는 부담감을 학습자는 거부감을 갖기 쉽다. 가령 대부분의 회화교재는 첫 단원에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그 분이 제 선생님입니다.’ 등의 인사말이 나온다. 이 경우 종결어미 ‘~ㅂ/습니까?’ ‘~세요?’와 존칭법,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 (여)서’와 ‘~(으)니까’, 보조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데, 외국 학생들이 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구분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문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설명을 하더라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연결어미인 ‘~(아)서’나 ‘~고’의 관계도 회화 교재에서는 동시에 나온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집에 갈까요?’와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라는 문형에서 ‘~고’와 ‘~(아)서’는 바꾸어 쓸 수 없는데 일반 교재에서는 따로 나누어서만 설명되어 있고 이 두 용법을 비교, 설명한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학 1학년일 경우 회화와 문법, 두 과목을 동일한 시기에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문법적인 설명을 요하는 문형이 회화 과목에서 처음부터 나오면 교수자는 이를 문법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야만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 진도는 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를 문법서에서 배우게 되는 시기는 회화 시간보다 늦어지므로 중복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만큼 성과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과목별 학습 목표가 미리 정해지고 이를 총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의 종합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난이도를 고려한 과목별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교육에서 반복적인 연습과 상황의 중복으로 정확한 발음이나 기본 문형, 표현법의 익습을 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이 방법이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이 대상인 한국어 교육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학습법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어 학습의 영역에 따른 각 과목별 교재 개발에 있어 난이도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5)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만에서 개발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는 중핵적 자료인 교과서 외 다른 보조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만 현지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재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기초 단계에서는 테이프 등 보조 자료로 정확한 발음과 듣기 연습을 하기에 유리한 한국 개발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자라고 해도 다양한 자율 학습 교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원의 내용과 상관되는 각종 보충 자료의 준비, 평가 자료, 교사용 지침서 등의 개발은 현 단계 중핵적 자료조차 부족한 마당에서 이른 감이 있지만, 여전히 장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6) 문화적 내용, 문학적 소양이 고려된 교재가 필요하다.

외국어의 학습은 단순히 언어 습득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습자는 외국 문자를 통해 자연적으로 그 문자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 국가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각국에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언어 기능의 습득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함과 동시에 외국 문화

를 수용하여 자국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외국에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목적 역시 한국어 구사 능력의 배양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지식, 한국 문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재 개발이 요청된다. 내용의 구성에서 한국 사회의 습관이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설정한다거나 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학의 경우 한국의 실정이나 역사, 문학과와 같은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어 본국어를 통해 접촉하기도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런 소재를 잘 활용하면 언어 습득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어학과 전공 학생이 그 대상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는 각국 자국어 교육의 목표이기도 한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럴 때만이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 최대한 근접하는 최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7) 교수자간의 긴밀한 유대와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교과 과정과 사용 교재가 말해 주듯이 현재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뚜렷한 목표 아래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 교과간의 연계성과 위계성이 갖추어지지 않고 개별 교수자의 경험에 따라 단독으로 진행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간의 유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사실상 교재 편찬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단일 과목의 경우 개발자의 소양에 따라 편면성을 떨 가능성이 많다. 교육 기관 혹은 단위별 차원에서 담당자의 공동 참여와 개발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실제 교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정치대학의 경우 과별 교과서 개발 지원이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교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를 다수인이 참여하여 정확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정도와 영역에 따라 필요한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최소한 학년별로 지속되는 동일 과목만이라도 계통 있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교육 단위별 지원과 공동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지만, 현재 대만의 경우는 두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고, 한국어 교육이 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어 교재의 개발은 시장 확보와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예로 현재 나와 있는 현지 교수자에 의해 개발된 교재가 모두 教育部 顧問室이나 國立編譯館 또는 대학의 경비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교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대학 외 일반인의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단기간 대만 자체 내 한국어 수요가 제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데,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의 해외 한국학 발전을 위한 경비 지원에 있어 교재 개발이나 편찬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교육원 혹은 문화관광부가 각국에 주재하는 문화처를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4. 맺음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육은 특정 국가의 국력이 배경 인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또한 이웃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한국어의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교수법에 있어서는 초창기 번역법과 문법 위주에서 구두 연습과 문형을 강조한 A-L법(Audio-Lingual), 그리고 현재 새로운 교수법이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교재의 선택과 개발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현지의 특성을 살리고 대상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재의 개발은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사정과 교재 개발의 방향은 언급한 대로이지만, 이제 전자 혁명의 혜택을 일반인 모두가 누리는 시대임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가령 컴퓨터의 가상 현실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학습 교재의 개발 등이 적극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중 매체의 발달과 젊은 층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감안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도 있으며, 이는 필자의 다년간 경험에 의해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가령 회화나 실습 과목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방송극이나 영화를 통해 교수할 경우 학생들은 같은 세대로서의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한국어의 모방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극적 요소들로 인해 오랫동안 주요한 문형을 기억하게 되고 또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현지의 방송극을 번역의 교재로 이용할 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경우 학습 정도에 따른 자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회화의 문법적 복잡성 때문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교재의 절대 부족을 실감하는 현 단계에서 중급 이상의 학습

자에게 매우 유리한 교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전략은 학습 대상에 따른 학습 동기 및 목적에 비교적 접근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인 장치를 교재 구성에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교재의 개발은 언어 학습의 다른 고리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총체적 교육 활동의 일부분이다. 한국어 교재의 개발 역시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 따라 내용을 설계하고, 그 학습의 극대화를 위해 교수·학습 활동을 고려하여 유기적 통일체로 구조화해야 한다. 본문에서 논의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일단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재 개발이 이러한 이론과 실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상술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충실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 강신항(1979), 『한국어문법』, 국립정치대학.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회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제1집.
- 楊人從(1986), 『韓語語法』, 중국문화대학.
- _____ (1999), 『韓語讀本 上·下』, 明文書局.
- 王 俊(1983), 『現代韓語基礎句型研究』, 국립정치대학.
- _____ (1983), 『韓語讀本』, 국립정치대학.
- _____ (1989), 『現代韓國語助詞』, 국립정치대학.
- _____ (1992), 『基礎韓語會話』, 국립정치대학.
- _____ (1993), 『韓語語音學』, 水牛出版社.
- _____ (1993), 『韓國語』, 국립정치대학.
- _____ (1994), 『韓語翻譯與解讀』, 국립정치대학.
- _____ (1995), 『韓語句法』, 국립정치대학.
- _____ (2000), 『綜合韓國語』, 水牛出版社.
- 王俊·郭秋雯(2000), 『韓國語語言學概論』, 水牛出版社.
- 李元植(1968), 『韓語入門』, 中華學術院韓國研究所.
- 林明德(1998), 『輕鬆學韓語-句型韓語 1-6』, 冠唐國際圖書公司.
- 曾天富(1994), 『中級韓語會話』, 국립정치대학.
- _____ (1999), 『韓國語視聽教材 III』, 국립정치대학.
- 蔡連康(1997), 『中級韓語讀本』, 국립정치대학.
- H. H. Stern, 심영택 외 역(1995), 『언어교수의 기본개념』, 도서출판 하우.

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Taiwan

Tseng Tienfu

In Taiwa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eign language has been conducted almost for half a century. Although Taiwan has broken off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since 1990's, financial, cultural, educational exchanges have been continued. Nowadays Taiwanese take a growing interest in Korean and Korean language.

At this point of time, firstly I studied the given situation of develop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Secondly I looked back on difficulties that we had in designing them, and presented reform measures.

Firstly, I examined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and exist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The Korean language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aiwan are not appropriate for KFL in Taiwan. Becaus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eign language in Taiwan is mainly for a university education in which most students study Korean language not for basic speech functions but for academic purpose.

So secondly I made troubles in develop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at university clear and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hey are as follows :

- 1) We should develop the Korean language materials which are suitable for the national peculiarities without delay.
- 2)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thodology and to set up the object of study.
- 3)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aterials variously by fields.
- 4) In developing the materials by field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ir must be considered.
- 5) Materials for study should be developed variously.
- 6) Korean cul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 7) Teachers should come into close relation each other. Also it is necessary for them to cooperate for developing the materials.